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평형·분양가·세대수 재조정 속도전

광주시, 전문가 그룹·시민단체·사업자와 사업조정협의회 첫 회의 다음주부터 매주 1~2차례 회의 열고 최적의 사업 계획안 확정키로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진행 중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사업자와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등과 머리를 맞대고 시민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아파트 평형, 분양가, 세대수 등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조정협의회 첫 회의를 열어 앞으로 논의 방식 등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시 건축·도시계획·공원위원회 등 관계자와 공무원, 시의원, 회계사, 시민단체 관계자, 추진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C) 빚고를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4차에 걸쳐 마련한 변경안 대신 지난해 6월 실시계획 당시 안을 놓고 사업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날은 첫 회의인 만큼 사업 규모 등과 관련한 의

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없었으며, 사업 진행 과정 등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시는 다음 주 열기로 한 2차 회의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 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점검과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SPC와 4차례 계획 변경을 통해 평당 1900만원, 후분양 추진에 합의했으나, SPC내 단일 최대 주주인 한양에서 선분양을 조건으로 1600만원까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광주시는 한양 측의 제안안이 현실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시민 공감을 더 얻도록 조정협의회를 통해 세부 내용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도 한양측 관계자가 참여해 협의회 참석자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조정협의회와 함께 분양가, 용적률, 평수별 세대수, 비 공원시설 면적 등을 재조정하고, 80평 이상 대형 평수를 줄이는 대신 시민들이 선호하는 평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또 협의회 운영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매주 1~2차례 회의를 열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에 협의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계획안 확정 시 늦어지면 토지비 상승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원 토지소유주 중 상당수도 사업계획 확정을 통한 조속한 토지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회의와 협상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면서 “협의회 참석자들도 사업 지연에 따른 부작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만큼 사업 계획안 확정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통합방위 유공자 표창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오후 도청 정철실에서 열린 2021년 전라남도 통합방위회의에서 통합방위 유공 기관 및 개인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도정 혁신위해 제안제도 활성화한다

국민신문고·우편·행정망 활용 창의적 제안 발굴 본격 나서

전남도가 민선7기 도정의 내실화와 고도화 전략에 발맞춰 국민신문고와 우편, 행정 내부망 등을 활용해 창의적 제안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부분의 제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점 등에 착안한 제안의 참여율을 높이고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도민과 공무원이 참여하는 수시제안과 공모제안을 통해 도정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반영하는 제안제도를 활발히 운용해 왔다. 도민은 국민신문고 온라인과 우편 등을 통해 제안하고, 도내 공무원은 국민신문고와 내부 행정 포털로 참여한다.

지난해 도민 제안은 총 271건이었고, 이 중 32건(11.8%)이 채택됐다. 공무원 제안 건수는 110건으로 이 중 13건(11.8%)이 채택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제안 마이리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 제안의 접수·관리, 마이리지 제공 등 인센티브 지원체계를 마련해 제안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신규 제안 발굴 유도를 위해 제안의 범위를 넓혀 ‘마이 잡 아이디어(나의 업무 개선) 제안 발굴’, ‘불필요한 일 버리기’ 과제를 추가해 손쉽게 제안이 이뤄지도록 했다. 제출된 제안을 해당 실국에서 심사해 채택하고 ‘전라남도 제안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제안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안심사사위원회’의 역할을 상시화해 내실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제안 채택 절차를 강화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제안 문화 확산을 위한 무

기병 제안 접수, 1부서 1제안하기 운동, 도정 발전 아이디어 공모 제도 등 기존 시책도 계속 운영한다. 수요자 중심의 제안심사 운영의 투명성과 내용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부서장 중심의 제안심사위원회, 불채택 제안의 도민보완제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우수제안 포상, 부서 균형성과관리 반영, 도시군 우수기관 선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제안을 생활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명장환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제도는 평소 생활에서 불편하거나 낭비되거나 사소한 것에서부터 도정과 사회, 국가를 바꿀 수 있는 획기적 아이디어까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수제안 채택 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전국 최고 농촌융복합산업 중심지 육성

경영체 인증 400개소 달성

전남도는 올해 전국 1위 친환경 농어업 중심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경영체 인증 400개소를 육성한다. 전남지역 인증경영체는 2020년 말 기준 308개소로 전국 1909개소의 16% 규모다. 올해 목표인 400개소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인증 증가율 36개소보다 약 2.5배가 많은 것이다. 전남도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사업비 12억5200만원을 지원한다. 인증기준은 최근 2년간 평균 매출액이 4000만원 이상, 가공품의 주원료는 국산으로 도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5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인증을 바라는 경영체는 언제든지 ‘전남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인증 상당 비용은 사업유형에 따라 10만원에서 60만원의 자기 부담액이 있다. 인증 경영체는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전문 상담과 현장코칭 사업, 유통플랫폼 등 인증사업자 육성을 위한 사업과 판촉활동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발효식품을 생산하는 보성 강산농원영농조합법인은 2018년 신규 인증을 받기 이전 연 매출이 13억원이었는데 인증 다음연도에 63억원으로 경증 뛰었다. 합평 금화영농조합법인은 이전보다 약 5억 원, 고흥 농업회사법인나로커피주식회사는 약 2억 원의 매출액이 늘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이용섭 시장 “공예작품 유통망 다각화... 경쟁력 확보”

양림동공예특화거리 방문

이용섭 광주시장은 24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방문객이 급감한 양림동공예특화거리를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정책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 특별주간’의 세 번째 일정으로 마련됐다. 양림동은 기독교 선교문화자원, 근현대 건축물이 현존하고 김현승·정윤성 등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근대역사문화의 보고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방

문객이 크게 줄면서 입주공방 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예가들은 ▲시티투어 버스, 펜션마을공예특화거리 정차시간 연장 ▲공방 임대료 감면 ▲광주시, 자치구, 공공기관 등 공예거리 공예품 구입 ▲공예거리 답장꾸미기 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양림동 펜션마을은 골목이 갖고 있는 레트로 감성에 공예산업 육성 정책이 더해져 도시 재생의 성공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공예작품의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다각화하는 등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 등 건의 사항 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국 첫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센터 광주서 개소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연중무휴 돌봄 시설을 개소했다. 광주시는 24일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센터 개소식을 했다. 센터는 장애인 종합복지관, 서구장애인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각 130㎡, 270㎡ 규모로 그룹활동실, 개인활동실, 심리안정실로 구성됐다.

발달장애인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복지관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후에는 지원 주택으로 이동해 돌봄을 받는다. 주말·휴일에도 돌봄이 이어지며 당사자와 가족이 원하면 주 1회 또는 월 1회 가정으로 돌아가 지낼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톡톡**

3대 실명질환! 당뇨망막병증이란?

- 당뇨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은 당뇨병으로 인해 시력에 가장 중요한 망막조직에 문제가 발생하는 병으로 성인 실명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해 혈관 주위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 시력저하가 일어나는 병입니다.
- 증상**
당뇨망막병증은 초기, 중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며 시력이 정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점차 심해져 말기가 되면 신생혈관에서 출혈이 생기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시야에 벌레나 먼지 같은 무언가가 떠다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거나 커튼을 친 것처럼 가려 보이는 증상, 광시증, 눈부심 등이 동반됩니다.
- 종류**
당뇨망막병증은 크게 비증식성과 증식성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비증식성은 망막의 혈관이 점점 약해지며 혈청이 새거나 혈관이
- 막히며 망막의 영양 공급이 끊겨 시력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당뇨망막병증 환자 대부분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식성은 비정상적인 혈관들이 나타나 증식하고, 유리체 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며, 섬유혈관막이 증식하면 망막을 잡아당겨 망막박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 치료**
당뇨망막병증 치료는 진행시기와 상태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철저하게 혈당조절을 함으로써 당뇨망막병증을 억제하고, 여기에 망막혈관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손상을 막기 위해 꾸준한 망막영양제 혹은 망막혈액순환 개선제 등을 복용하면서 주기적으로 경과를 관찰합니다. 당뇨망막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나 주사치료, 초저체절제술 및 유리체절제술 등 수술적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소기업·소상공인
언제나 든든하게 지켜드리니까

언제든지 노란우산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 연 최대 500만원 소득 공제
- 연 복리 이자 지급
- 공제금 압류 금지
- 경영·심리 무료 상담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